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

¹³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
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
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지라 ¹⁴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
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
는 이 일이 어찌 됴이냐 어찌하
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¹⁵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
려고 내게로 오니라 ¹⁶그들이 일
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¹⁷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¹
⁸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
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
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18:13-18)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8
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장인 이드

로가 만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
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것의 의미는 신앙인의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만나 서로 결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는 마
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높은 데
서 낮은 데로 흘러들어 오는데,
사람 안에서는 가장 깊은 내면(*in
most*)으로부터 흘러나와 속 사람
(*internal*)을 거쳐 겉 사람(*extern
al*)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니
까 사람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은
가장 깊은 내면이고요, 그리고 가
장 낮은 곳은 겉 사람이라는 것
이죠. 따라서 모세와 이드로의 만
남은 선과 진리가 겉 사람으로
가기 전에 일단 가장 깊은 내면
과 겉 사람 사이에 있는 속사람
안에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주님께
게서 나오는 진리를 표상하고요,
이드로는 선을 표상하기 때문입
니다. 선과 진리가 속 사람 안에
서 하나가 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은 이렇습니다.

¹³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

출18:13-18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

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옆에 서 있고요, 모세는 그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신앙인들이 진리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진리와 상의하고, 진리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고, 또 모세의 옆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주님이 진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고 하니,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진리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은 내적 상태를 나타내고, 저녁은 외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마음

으로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생각하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마음으로도 진리에 복종하고, 행위로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내면인 속 사람은 외면인 겉 사람보다 훨씬 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아침에 비유하고, 겉 사람을 저녁에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진리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진리를 통해 끊임없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¹⁴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다 봤다는 것은, 선이신 주님이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의 전지하심을 뜻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진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통찰력은 주님의 사랑, 또는 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선을 표상하는 이드로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드로가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내면의 선으로부터 어떤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부터 지각하는 것이 있고요, 선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드로가 말했다고 하니 선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각일까요? 모세가 홀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홀로 앉아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곁 사람 안에 진리만 있고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리에 복종하더라도 스스로 원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

다. 진리의 명령에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죽을 것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가 아니고요, 일종의 강박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진리를 자신에게 강제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곁에서 있는 것’은 진리만 있는 상태이고, 그러므로 마지못해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15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사람의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해 하나가 될 때, 신앙인들은 내면에서 모세와 이드로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드로로 표상되는 선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가 그 원인을 찾아나섭니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다시 이드로로 표상되는 선이

출18:13-18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

문제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결합하게 되면, 둘 사이에 모세와 이드로가 대화하는 것과 같은 소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에는 진리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진리와 선이 협력해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은 이드로로 표상되는 선이 문제 제기를 하자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가 그것에 대해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 내게로 오이라’**라고 한 것은 신앙인들이 모든 일을 오직 진리에 게만 물어보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있을 때 모세를 찾아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리와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는데, 물론

직접 해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실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하고 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모세가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율례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도는 진리이기는 한데 그 바탕에 선이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법도 하나만 알려주시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모두 알려주실까요? 주님은 먼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삶에 적용할 때는 선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엇을 배우니까? 공식을 배우죠. 그런데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공식이 율례라면 그것을 응용하는 지혜는 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순탄하고, 그래서 시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시련이 있어야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선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처음에 이드로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자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드로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드로가 말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한 예지(叡智), 또는 통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 비추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욕심 같은 것

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일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들어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망이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 오는 빛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럴 때는 판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높은 등차, 수준의 진리를 놔두고 낮은 수준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선이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선은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선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면의 선이 하는 말이며,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서 이드로는 그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출18:13-18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다’

¹⁸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력이 쇠하는 것’은 그 상태로는 진리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무겁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에게 너무 무겁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리와 선이 함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겉 사람 안에 선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리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 진리에 복종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필경 기

력이 쇠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드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악을 저항할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선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때가 되면 선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때 속 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 안에서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선의 능력이 바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속으로 선이 개별적으로 흘러들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억지로 행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라는 자각이 수시로 올라온다면, 그래서 주님께 '저에게 선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때가 우리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시험이 올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³¹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³²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³³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25:31-33)

아멘

원본
2016-10-09(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30(D6)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